

시 민

| 주무관 | 친환경교통정책팀장 | 친환경교통과장 | 기후변화정책관 | 기후환경본부장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
| 유광모 | 이노성 | 양완수 | 김용복 | 07/18 임옥기 |
| 협 조 | | | | |
| 주무관 신병호 | | | | |

| | |
|------|--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친환경교통과-11532 |
| 결재일자 | 2013.7.18. |
| 공개여부 | 대시민공개 |
| 방침번호 | |

함께 만드는 서울, 함께 누리는 서울

『'13년 보행자 중심의 차 없는 서울』 운영을 위한 공 청 회 결 과 보 고

2013. 7

기후환경본부
(친환경교통과)

사전 검토항목

∴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| 검토항목 | 검 토 여 부 (■ 표시)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시민참여 고려사항 | ● 시민 : 유 ■ (통제구간 차량이용 시민) 무 □ |
| | ● 이해당사자 : 유 ■ (통제구간 병원, 예식장, 호텔, 종교시설, 상가 등) 무 □ |
| | ● 전문가 : 유 ■ (교통 및 환경분야) 무 □ |
| | ● 음브즈만 : 유 □ () 무 □ |
|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| ● 법령규정 : 교통 ■ 환경 □ 재해 □ 기타 □ () 무 □ |
| | ● 기타사항 : 고용효과 □ 노동인지 □ 균형인지 □ 홍보 ■ 취약계층 □ 성인지 □ 장애인 □ 디자인 □ 갈등발생 가능성 ■ 유지관리 비용 □ 무 □ |
| | ● 중앙부처 : 유 ■ (환경부 대기관리담당관) 무 □ |
| 타자원 의 활 용 | ● 민간단체 : 유 ■ (교통 및 환경단체) 무 □ |
| | ● 기업 : 유 ■ (통제구간 소상공인) 무 □ |
| | ● 관계기관 : 유 ■ (25개 구청 및 경찰청) 무 □ |
| 관계기관 및 단체 협의 | ● 민간단체 : 유 □ () 무 □ |
| | ● 시산하기관 : 유 ■ (서울시시설관리공단) 무 □ |

『'13년 보행자 중심의 차 없는 서울』 운영을 위한 공 청 회 결 과 보 고

시민의 참여와 주도로 '차 없는 거리'를 확대하고 불편최소화, 보행문화 확산등을 위하여 시의원, 전문가, 시민단체,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

I 개 요

- 일 시 : 2013. 7. 16(화) 15:00~17:00
- 장 소 :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
- 참석자 : 220명(시의원, 관련전문가, 시민단체, 이해관계자, 시민 등)
- 주 제 : 『'13년 보행자 중심의 차 없는 서울』 운영
- 진행순서

(사회: 이노성, 친환경교통과 친환경교통정책팀장)

| 시 간 | 내 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5:00~15:05 (5') | ▪ 개회 및 참석자 소개 |
| 15:06~15:10 (5') | ▪ 인사말씀(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) |
| 15:11~16:00(50') 〈발제〉 | ▪ 주제발표 - 보행을 우선하는 건강한 서울교통 (고준호, 서울연구원 연구위원) - 차없는 서울의 추진 의미와 확대 시행 방안 (양완수,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) |
| 16:01~16:55(55') 〈지정토론〉 | ▪ 좌 장 : 이성모(서울대 교수) ▪ 토론자 - 조 규 영(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) - 이 세 걸(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) - 송 상 석(녹색교통 사무처장) - 추 상 호(홍익대학교 도시공학부 교수) - 성 현 곤 (한국교통연구원) ※ 이해관계자 및 일반시민 질의응답 등 |
| 16:56~17:00(10') | ▪ 폐회 |

II 결 과

□ 총평

- ‘차 없는 날’의 진정한 의미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며, 도로는 자동차에서 사람이 우선하는, 즉 보행자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음
- 그 일환으로 ‘나홀로 차’ 등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는 문화 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닌 명분이 뚜렷한 ‘차 없는 거리’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며, 이를 계기로 대중교통, 자전거, 도보로 이동함으로써 도심내 대기환경은 개선되고 시민건강은 증진되는 것임
- 실행에 있어서는 관이 행정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면서 불편은 최소화하고 재미는 최대화 되어야 ‘차 없는 거리’가 정착되어 질 것이며 현재까지 진행 해 오던 방식을 탈피한 전환적 검토 필요
 - 선 단위 통제에서 면 단위 통제 검토
 - 4대문 안 확대시행이 시기적절하므로 확대 방안 검토
 - ‘차 없는거리’내 시민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축제 필요
 - ‘하이서울페스티벌’과 연계하고 사업비 일부를 공유하는 방안
 -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활용으로 도심내 차량 미진입시 인센티브 지급 등
- 교통대책에 있어서는 차량 우회도로 확보방안에 대한 다양한 계획과 경찰청 등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인식을 같이하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
- 차가 없으면 불안했는데 오히려 차가 없으니까 너무 편하다는 느낌을 갖는다면 시민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‘차 없는 거리’는 성공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고심과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것임

□ 주요의견

○ 토론자

| 토론자 명 | 토론자 의견 | 비고 |
|-------|---|----|
| 조규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승용차 수송분담율이 26%인데 반해 온실가스는 55%이고 대기오염원은 62% 라는 점에 놀라움 ▪ ‘차 없는 거리’ 재미는 Up, 시민불편은 Down 최소화 ▪ 거리 곳곳에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 ▪ 하이서울페스티벌과 연계하는 등 양자결합 방안도 검토 | |
| 성현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교통정책은 소규모로 시작하여 점차 크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은 모델임 ▪ 차 없는 날 확대방안에 대하여 기대가 됨 ▪ 차가 없으면 사람은 건강해지고 도시는 활력이 넘치게 됨 ▪ 차 없는 거리는 1회성이 아닌 반드시 확대 필요하며 서울시만의 특색이 필요함 | |
| 송상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차 없는 거리는 시민단체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음 ▪ 차 없는 거리 시행요일, 날짜 등 서울시 포커스를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함 | |
| 이세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행사 하나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음 ▪ ‘차 없는 거리’는 이전행사와는 차이가 있어야 하고 시민의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므로 적극적인 추진 필요 ▪ 전체적으로 행사준비기간이 부족하지만 관련부서 및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필요 ▪ 차없는 거리는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의식전환 필요 | |
| 추상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살고 싶은 도시는 걷고 싶은 도시임 ▪ 차 없는 거리 행사가 단초가 되어서 보행도로에 대한 정책이 되었으면 하며, 차를 가지고 나오면 불편하다는 건 정상적이고 또한 불편해야 함 | |

○ 방청단체

| 방청단체 | 방청단체 의견 | 비고 |
|---------------|--|----|
| 신촌변영회 상가대표 | ▪ ‘차 없는 거리’가 조성된 신촌(연세대)의 경우 대형 마케팅사들이 상점을 선점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도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| |
| 녹색자전거 봉사단 | ▪ 차 없는 거리의 추진의미는 ‘나 홀로 자가용 줄이기’이었으므로 월요일 시행이 그 근본취지와 맞다 생각함 | |
| 환경과 사람등 | ▪ 차 없는 거리를 25개 자치구에서도 같이 시행한다면 더욱 그 의미와 취지도 좋을 것임 | |

Ⅲ 향 후 계 획

- ‘13년 차 없는 날’시행에 앞서 수렴한 토론자 및 방청객의견, 시민 설문조사, 용역결과를 종합하여 서울지방경찰청과 최종 협의
- 도로 통제구간 등 최종 협의결과에 의거 ‘13년 차 없는 날’ 시행에 관한 시장방침을 득한 후 추진

Ⅳ 현 황 사 진



발제자 주제발표



토론자 토론



본부장님 인사말씀

토론자 토론 및 방청의견

따로붙임 : 1. 발제자료(별첨) 1부.

2. 발제자 및 토론자 세부의견 1부. 끝.